

가정과 교회

Family and Church

요한복음 19:25-2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5월 13일 어머니주일 설교

²⁵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²⁶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²⁷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천국에는 없다

사두개인 아시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란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마 22:23-33). 일곱 형제가 있는데 맏이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다가 둘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죽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다 하면서,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길 거니 부활교리는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겠지요.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이런 여자가 정말 있다면 참 기구한 운명이다 하겠지요?

예수님이 간단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든다.” 결혼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선은 부활 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이 더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또 부활 때는 지금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가 다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이 있어야 부부 사이가 있겠지요? 결혼을 해 자식을 낳아야 부모자녀 사이도 생깁니다. 결혼이 없으면 형제자매도 없을 거고, 삼촌, 사촌, 이모, 고모,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건 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 이름을 물으면 무슨 자 무슨 자 쓰십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까마득한 조상 이름을 댈 때는 노 자 아 자 쓰십니다, 아 자 담 자 쓰십니다, 하지 않지요. 나하고 직접 이어져 있는 시간만 중요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 아프리카에 사는 꼬마도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나하고 친척이 됩니다. 그렇지만 친척도 가까이 살아야 친척이지요. 이웃사촌이 먼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우리 세상 관계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제한된 공간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선후배였던 사람이 제대한 뒤에도 그런 사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관계는 새 세상, 곧 부활 때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부부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자식 키우는 재미도 마음껏 누리고, 부모님 모시는 일도 다음 세상으로 미루지 말고 여기서 더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과 세상

예수께서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한테 말을 전하기를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뜸 말씀하시기를 “누굴 두고 지금 내 어머니라, 내 동생이라 하느냐?” 하시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잘 보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46-50; 마가복음 3:31-35; 누가복음 8:19-21).

예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냐 하면, 다시 말해, 누가 내 식구나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21). 한 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내 식구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식구가 중요하지 이 땅을 살면서 생긴 식구나 부모자녀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버지 장례식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복음 8:21-22) 또 나를 제대로 따르려면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29).

세상의 인간관계는 시간, 공간 면에서 제한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을 벗어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생긴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가 된 이 관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도 한 식구처럼 살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한 식구로 삽니다. 그러니 없어질 세상의 관계보다 영원히 있

을 영적 관계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 때

하지만 영적 관계가 세상의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세상의 인간관계를 무시해 버리면 그건 잘못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윤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다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고 아들로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눅 2:51). 우리도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하면서 육신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셔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모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되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윤리를 실천할 때도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게 됩니다. 영원의 관점이 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주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거겠지요?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족이 아니라도 주 안에서 다 같은 식구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고 인간관계 전부 죄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또 죄가 저질러 놓은 다른 문제들까지 함께 아파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 가정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 요한하고 같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요한이 곁에서 부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는 나 대신 곁에 있는 요한을 이제 어머니의 아들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도 마리아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네 어머니로 모셔 나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 똑같이 살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 예수는 내 구주일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낳아 젖 먹여 기른 아들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마리아는 구세주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한 인간이면서 또 그 구주를 세상에 오게 하고 양육한 어머니입니다. 오래 전 남편을 잃고 살아온 어머니,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사형수로 먼저 보내야 하는 눈물의 어머니, 고통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엮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이어주신 일은 오늘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의 윤리도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그 윤리를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육신의 관계가 중요하데 그걸 영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완벽하게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식이 없습니까? 말아들 예수 아래로 자식이 여럿 더 있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딸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55-56).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생들은 어머니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았습다 (요한복음 7:5).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맡기는 대신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된 요한에게 맡기심으로써 영적인 식구가 육신의 책임까지 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 영생을 얻으셨으니 남은 세월은 고생 좀 하세요, 그건 무책임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책임을 동반하는데, 영적인 관계는 이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내팽개치는 책임을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진지하게 더 철저히 이루고자 애를 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 5:8). 깨어지고 상처받은 세상의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치료할 책임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 곧 교회가 맡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요한이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하였습니다만,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모신 그 마리아가 뜻밖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는 당연히 요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3-14).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이 요한하고 나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동생들이 안 믿을 때는 요한하고 함께 있었겠지만 동생들이 예수를 믿은 지금은 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식구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된 다음에는 육신의 인간관계에 담긴 책임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 그 짧은 몇 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안 믿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지요? 성경에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만 힌트는 하나 있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만나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7). 믿지 않던 동생들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형님을 보고서도 어찌 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안 믿을 때는 큰 형님 예수가 어머니를 믿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지만 내가 믿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맡는 게 당연합니다.

이중의 인간관계

세상을 살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삶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식구가 된 영적 가족, 곧 교회의 삶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가족, 곧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집안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평등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관계입니다. 위아래는 없고 그저 모두가 똑같은 동기간이요 형제자매사이입니다. 받들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사이 좋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도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아무도 아래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관계는 다릅니다. 위아래의 질서가 있습니다.윗사람은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교회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부모자녀사이지만 교회에서는 다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옳고,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지도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여러 가정을 모아 놓은 큰 가정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윤리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부모님 나이가 되는 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비슷하면 동기간처럼 지내면 되겠지요. 사도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가르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1-2).

말씀을 전해야 하니 꾸짖을 때도 있고 권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목사라는 이유로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은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룰 인간관계의 바탕입니다. 위아래가 있는 관계는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의 관계이지만 영적 가정을 이룬 지금도 우리가 다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고,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도 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옆으로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아래로는 자녀들을 기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

그렇지만 교회가 그냥 여러 가정을 모아놓은 큰 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주 예수께서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또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이 세상에 가져다 놓은 온갖 문제, 온갖 아픔, 온갖 잘못된 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 바로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가져 온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낮게 해 줄 책임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성이 문란해져 사생아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랑과 보호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아이를 가정에 입양해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가정을 주셨는데 마귀가 그걸 영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통해 그걸 바로잡았으니 그건 마귀와 싸워 이긴 거지요.

육신의 정욕이 가정을 깨뜨립니다. 간통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폭력 때문에 깨지고 거짓 때문에 깨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부부 두 사람이 다 이기주의자라서 가정이 깨집니다. 배우자의 죄 때문에 이혼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교회는 위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자녀들을 교회는 따뜻하게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는 다 내 아이라 생각하고 챙겨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주일

오늘 어머니주일에 우리 모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위아래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를 뛰어넘는 희생과 사랑이 또한 있습니다. 이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비록 그 또한 이 땅에만 있다가 없어질 관계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머니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로서는 어머니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어머니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믿음의 어머니라면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며 육신의 어머니로도 참고받고 또 못 볼 때는 몹시도 그리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 살아 계시는 분도 있겠고 먼저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그저 감사한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기만 해도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얼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영원의 세계를 함께 살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땅 위의 관계라는 건 영원의 뒷받침이 없을 때는 그렇게 허약하고 허무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를 교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분은 아니지만 내 어머니의 세대에 속하여 나 또래의 자녀를 두신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은 다 내 어머니입니다. 여기 가슴에 꽃을 달고 앉아 계신 어머니가 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요, 우리와 함께 영원의 세월을 보낼 참 어머니입니다.

오래 됐습니다만, 한국 부산의 어느 장로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을 못 모셔본 것이 한이 되어 내 부모 아닌 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자꾸 늘어 나중에는 양로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모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남이 내다버린 노인들을 모셔다가 대소변을 손으로 직접 치워가며 받드신 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저는 그 장로님이 아마 그렇게 모시던 수많은 부모님들, 특히 수많은 어머니들과 영원의 낙을 지금 누리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영원의 어머니

교회생활은 감사의 연속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잘못된 관계를 교회에서 바로잡을 뿐 아니라 영원을 함께 즐길 하나님 집 식구들이 모여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오늘 어머니주일을 맞아 우리는 먼저 땅에서 아픔을 겪으시는 어머니들을 이 교회에서 위로하고, 영원의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어머니를 만나 잘 모시고,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 누릴 복을 생각하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천 년 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과 어머니와 아들로 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권수경 목사)